

원자력 개발은 우리의 과제



차 부 양 <영등포여고 1학년>

11월27일. 이 날은 방학이 시작되면서 부터 내가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다. 왜냐하면, 이날은 내가 생전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중의 하나인 고리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은 다가왔고, 나는 지도 선생님과 안면이 있는 오빠, 언니와 함께 경부선인 무궁화호를 탔다. 무궁화호는 내 마음을 알고나 있는 듯이 레일위를 미끄러지듯이 재빨리 달리고 있었다.

창밖에는 눈에 덮힌 산이나 밭, 혹은 집들이 재빨리 스쳐 지나갔다. 어서 어서 부산에 도착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대체에너지로써 소중한 원자력을 쓸모있게 이용하는 현장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었다. 이런 시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미 부산에 도착해 있었다.

28일. 부산에 도착해서 하루가 이미 지나갔다. 아침 일찍부터 고리를 향해 출발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다. 버스에 올라 타고 부산에서 빠져 나와 양산군 장안면 고리에 있는 원자력발전

소로 향했다. 멀리서 발전소가 보이자 왠지 가슴이 뚫뚫해지고 '와하'하는 탄호성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원자력 발전소의 정문에 도착했을 때, 발전소를 드나드는 차량 및 사람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검문하는 것을 보고 새삼 원자력발전소의 중대감을 느꼈다. 발전소에 들어가서 처음 본 것은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건설할 때의 모습을 담은 필름이었다. 많은 분들의 노고 끝에 이루어진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으며, 또 차근 차근 발전원리를 설명해 주어서 조금이나마 더 원자력발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발전소는 크게 원자로와 터빈으로 나눌 수 있고, 여러겹으로 된 원자로는 절대로 방사능이 새어나올 수 없도록 아주 안전하게 설치되어 나올 수 없도록 아주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영화로 본 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시청각실이었다. 그곳에서도 토끼눈처럼 동그랗게 놀란 눈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려고 설명하는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모두 모두 신기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신감, 긍지를 새롭게 해 주었다. 그런데, 그런 종에 한가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것은 폐기물에 대한 것이었다. 아직까지 폐기물을 처리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건물속에 보관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엄격히 검사하여 보관하는 것이지만,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방사성폐기물의 보다 더 안전한 처리장소를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시청각실을 나와서 버스로 발전소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로 올라갔다. 전망대는 바람이 불어서 조금은 추웠지만, 발전소를 내려다보니 우리나라의 미래를 한눈에 보는 듯해서, 또 한번 가슴이 뚫뚫해졌다.

21세기, 모든 나라는 유한한 자원에서 벗어나 대체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때쯤

이제는 누가 내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물어온다면, 자신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반 친구, 아니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느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

이면 우리나라도 세계의 주역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바람이 싱그러웠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잔잔한 바다. 거대한 발전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뒤로 한채, 버스는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버스안에서 지도 선생님과 언니, 오빠들과 함께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이 아쉬운듯 서로 주소도 교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불렀다.

그날은 밤이 깊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엄마를 보자, 반갑기도 하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것을 자랑하려고 계속 나 혼자 떠들어 댔다. 누구에게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자랑하고 싶었다. 그것은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하고 난 내 느낌이기도 하고 그 일에 종사하는 분과 우리 학생들에 대한 과제이기도 했다.



첫째는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도 어느나라의 그것에 못지않게 훌륭하고 거대했다는 점.

둘째는 하루 속히 폐기물을 좀더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장소를 찾아내든지, 만들어야 한다는 점.

셋째는 지금의 원자로보다 좀더 나은 형태의 원자로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

넷째는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는 다르다는 점.

이런 것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말하고 싶었다. 특히, 네번째의 것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기피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좀더 나은 원자로의 개발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장소의 모색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이자, 내일을 짊어질 우리 청소년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누가 내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물어온다면, 자신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반 친구, 아니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느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

끝으로 지금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시는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교훈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를 주신 한국 원자력 산업회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낸다.